

'2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05	5.28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3	1	2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5.18 의미 생각하고, 조명하는 다양한 형식의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바람	5.18 기획보도 3부작(5.15~17), 5.18 4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5.29) 등 방송 조치	'25.5
"	<시사용광로>, 지역의 공약을 잘 이해하는 토론자 섭외 부족 아쉬움	보도 및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용광로>에서 다룬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후속 취재, 해결책 제시 기대	<뉴스데스크> 혼란의 6개월...압도적 투표로 완성한 '빛의 혁명'(6.4), 첫 지시 "골목경제 살려라"(6.5), "30년 숙원 전남국립의대"(6.6), "새 정부가 통합문제 완결해야"(6.9), <시사톡 라이브> 이재명 정부 출범, 내각 인선 등 국정 운영 방향?(6.6) 등 방송 조치	"
"	AI, 에너지 신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현안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이재명 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군공항 약속(6.4),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AI 데이터센터 '기대감'(6.5), <뉴스투데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전남 '에너지 수도'로(6.5), 에너지 전환 시대...전남 서남권에 쏠린 눈(6.9) 등 방송 조치	"
교양	지역의 공연 소식 전해주기를 바람	<뉴스데스크> ACC 6월에 선보이는 색다른 공연(6.6), <빛나는 나의 도시> 매주 목요일 문화가 코너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는 지역의 인물, 문화, 현장을 생생하게 조명해주길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전설의 가들(6.10), LTE 빛나는 현장(6.4), 토요일엔 야시장이 좋아 백운광장 야시장(6.5) 등 방송 조치	"
"	<광주MBC보다>, 지역 관련 소재, 주제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광주MBC보다>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6.9), 전설의 가들(6.2), 곡성세계장미축제(6.2) 등 방송 조치	"
연예·오락 (스포츠)	<영산강 그란폰도> 외에 다양한 스포츠 종목 소개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 E·T야구단, 첫 출전 전국 대회 우승(5.31), <뉴스투데이> 생활체육 인구 증가...“인프라 확충(5.30), 전 세계 유망주들, 축구 도시 목포로 모였다!(6.5) 등 방송 조치	"
기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 바람	5.18 4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5.29), 지역성 강화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 <빛나는 나의 도시> 제작 방송 중	"
" (방송통신심)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규정 준수	편성 및 보도 책임자 전달 및 규정 준수 권고 조치	"

의위원 회)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5.18 의미 생각하고, 조명하는 다양한 형식의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바람	해마다 5.18 기획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이어나가겠음. 2013년부터 10년째 매년 이어오고 있음	○		
"	<시사용광로>, 지역의 공약을 잘 이해하는 토론자 섭외 부족 아쉬움	생방송의 한계로 지역현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토론자 섭외 어려움 있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만 최대한 노력해가겠음			
"	<시사용광로>에서 다른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후속 취재, 해결책 제시 기대	<시사용광로>와 <뉴스데스크>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용광로에서 다른 의제가 뉴스에서 후속 취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AI, 에너지 신산업,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현안 보도 바람	광주, 전남지역의 미래산업과 관련해 더욱 적극 취재해나가겠음	○		
교양	지역의 공연 소식 전해주기를 바람	ACC, 광주예술의전당 등을 비롯해 지역 공연소식 충실히 전달해나가겠으며, <빛나는 나의 도시> 목요일 문화가 코너에서 다양한 공연 소식 안내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는 지역의 인물, 문화, 현장을 생생하게 조명해 주길 바람	생방송의 특성을 현장감 있게 지역의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겠음	○		
"	<광주MBC보다>, 지역 관련 소재, 주제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지역성을 강화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방송하겠음	○		
연예·오락 (스포츠)	<영산강 그란폰도> 외에 다양한 스포츠 종목 소개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스포츠 특화 코너를 준비 중임	○		
기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 바람(추후 개편에서 광주MBC 현실을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규정 준수	선거방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5월)

일시	2025년 5월 28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동진 · 김안나 · 박양우 · 박종수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정인영 · 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광주 올 때는 설레는 것 같다. 임기 마지막 회의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린다.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어쨌든 남은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 잘 마무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위원님 참석 감사드린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위원회 임기를 마치게 됐다. 광주MBC의 주인인 시청자를 대표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발전을 위해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계속 사랑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5월 광주에 큰일이 많았다. 5.18 45주년이 있었고, 내일 저녁에는 5.18 특집 다큐멘터리가 있다. 광주MBC 계속 사랑해 주길 바란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4월 26일 영산강 그란폰도 행사 개최 및 생방송을 했으며, 4월 30일 <더 프레지던트> 5.18 특집 녹화에는 강기정, 고도원, 안귀령, 박구용 출연했다. 5월 2일 보성 다향대축제기념 <MBC 가요베스트> 녹화했으며, 방송은 6월 1일이다. 5월 12일 라디오 부분 조정을 시행했다. 신규프로그램으로 <라디오 칼럼>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월~금요일 표준FM을 통해 오후 1시 55분 방송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아카이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돼 5월 22일 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계획으로는 5월 24일부터 몽골 NTV에서 <아시안 탐밴드 시즌2>가 30분씩 4부작 방송 중이다. 내일은 <아시안 탐밴드 시즌3> 제작을 위한 화상회의가 있다. 6월 4일 광주 우수상품박람회 녹화가 있고, 6월 중 라디오 칼럼니스트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7월에는 국립남도국악원 특집 <우리가락 우리문화> 제작을 위해 준비 중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5.18 45주년 특집 <뉴스데스크> 및 기획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5월 17일(토) 특집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며, 5.18 기획보도 3부작을 방송했다. 1편 '오월 광주'가 내란을 막았다, 2편 역대 대통령들의 5.18 인식, 3편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등을 제목으로 보도했다. 5.18 4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는 내일 본방이 있다.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에는 배우 김의성, 김규리, 조진웅, 영화감독 변영주, 광주 시민들이 시 낭송이 담겼다. 5월 29일 밤 9시,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한다. 6.3 조기 대선 기획보도로 후보별, 정당별 지역 공약을 분석하고, 광주·전남 지역 대선 공약을 기록하고 비교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시사용광로>는 광주와 K-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와 오월 정신, 6·3대선 표심 키워드와 변수는?, 대선 막바지, 각 당의 전략은?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네이버 포털 입점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가 6월 출범하는데 지역 매체 특별 입점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 그 후에 관해 보도를 준비하는데, 대통령선거 당선자와 정당들의 공약 분석, 지역 의제와 민심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촉구하는 보도, 지방선거 D-1년 준비, 내년 6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앞두고 준비 본격화, 다른 지역 언론사와 함께 공동여론조사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광주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는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금남로에서 펼쳐진 123일간의 뜨거운 투쟁의 현장을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담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2024년 12월 3일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저항 정신을 강조한다. 특히, 금남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닌 민주

주의 광장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와 이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5.18을 조명하는 다양한 형식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바란다.

-4월 28일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재혁 무등일보 기자가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이슈를 정리하고 경기 일정이나 이벤트 정보를 나눠준다. 기아타이거즈 야구 소식, 광주FC 축구 소식, AI페퍼스 배구 소식,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소식까지 알려줬다. 기아타이거즈의 어린이날 이벤트를 알려주는 등 알찬 소식을 전달해줘 항상 즐겨듣고 있다.

-5월 2일 <뉴스투데이> 파크골프장 관광 시대 제하의 보도에서는 강원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노년층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서울,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올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저렴한 이용료가 매력적이라고 한다. 양양군과 화천군의 파크골프장이 특히 인기 있으며, 원주시는 파크골프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실버세대를 위한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원 영동은 파크골프를 통해 관광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 단순하게 파크골프 종목 소개를 넘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알려줘서 더욱 유익했다.

- 김동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는 지역성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성과 일상성, 그리고 방송의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구성은 행사성 소재나 이벤트 중심의 소개로 기획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주도 활동, 청년 창업, 돌봄 공동체 등 보다 긴 호흡의 서사를 담아낼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지역 사회를 함께 그리는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의 직접적인 제작 참여나 시민 리포터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면, 실질적 시민미디어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지역의 인물, 문화, 현장을 생생하게 조명해주길 바란다. 시청자에게 정서적 공감과 정보 전달을 동시에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특집-기억을 넘어 공감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진화가 필요하다. 올해 5.18 특집은 다양한 시도와 깊이 있는 보도로 지역 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잘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시선의 전시, 다큐프라임 등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5.18에 대한 콘텐츠가 단지 '기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5.18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참여형 콘텐츠, 기억을 체험과 토론으로 연결하는 실험적 포맷 등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억의 전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 위주에서 공감과 질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광주MBC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에 두고 콘텐츠를 구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목소리, 특히 젊은 세대의 시선이 적극 반영된 기획이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시청자와 함께 지역의 내일을 그리는 방송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바란다.

- 김안나 위원 : -광주문화방송은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현재 광주MBC의 주요 프로그램은 뉴스와 시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5월 17일 뉴스에서 소개한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가 인상 깊었다. 문학을 통해 5.18을 알리는 다큐멘터리가 5월 29일에 방영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참신한 좋은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길 바란다.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오히려 받은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다. 임기가 끝나서 뵈기 힘들겠지만, 밖에서라도 MBC의 발전을 기원하겠다.

- 박종수 위원 : -1년 동안 귀중한 자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배웠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 농업 농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영산강 그란폰도> 생중계가 4월 26일 있었다. <영산강 그란폰도> 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현장감 있는 중계를 통해 지역 스포츠의 활기를 잘 전달했고,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참여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양우 위원장 : -<광주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시대를 넘은 한·일 저항 문학의 연대’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여러모로 뜻깊은 좋은 보도였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당시의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국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류 보편의 불의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승화시키게 한 좋았다.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와 광주의 문인 문병란 선생을 연계함으로써 문학이 어떻게 지역과 국가를 넘어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지를 짚은 뉴스를 통해 잘 전달해주었다.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와의 민간 차원 친선 교류의 가능성도 열어주는 등 여러 각도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더 나오면 좋겠다.

-<시사용광로> ‘대선 막바지, 승부 가를 전략은?’ 편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선거에 임하는 입장과 지역 공약에 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 제약이 있었던 만큼 서두에 제기하신 판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대신 본격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판세를 묻는 질문에 양향자 님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다란 칭송은 다른 패널들에 비해 시간도 길뿐만 아니라 판세에 대한 의견을 뛰어넘는 답변이어서 듣기에 거부했다. 사회자께서 적당히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려다 보니 막상 지역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뭔가 토론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사회자께서 서둘러 토론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공약 중 쟁점이 되는 의제 두세 개를 선정해서 공약 의도와 목표,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선거 유세 기간이라 패널 선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우리 지역 공약을 더 잘 이해하는 분들을 모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 유한별 위원 :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같이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된 것 같다. 지역방송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지고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피드백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게 됐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용도 잃고 방치된 광주 공공건물에 대한 지적, 광주교육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이 저조한 점에 대한 우려, 역사를 왜곡한 과거사정리 위원장 등에 관해 다뤘다. 우리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전달이 좋았다. 광주FC의 ACLE 8강전 새벽 응원 소식도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다. 시민구단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와중에 선전 중인 광주FC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설의 가들’이라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에 관한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위즈덤 선수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5월 14일에는 <사형수 김대중> 연극 소개와 시의원들의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대선 공약은?’이라는 주제의 대담을 방송했다. 5.18과 대선이 가장 큰 이슈인 광주 시민의 관심사를 반영함으로써 특히 유익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5월 공연인 <디바인 메모리>의 아트 디렉터가 출연해 AI와 발레로 만나는 5.18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 5월 17일 <디바인 메모리>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빛나는 나의 도시>를 미리 보고 간 덕에 다소 추상적인 공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뜻깊고 훌륭한 지역의 공연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가 제58회 휴스턴국제영화제 중편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한 해외영화제 수상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쾌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작품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추적했다.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5·18의 중요한 단면들 취재를 통해 드러내며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의 비밀 통신 기록인 ‘체로키 파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로버트 리치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찾아 나선 광주MBC 취재진의 노력은, 지역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의 탐사 보도를 구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광주라는 지역성과 5·18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실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았기에 국제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MBC

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저널리즘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그가 죽었다>는 지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임에도 이달 18일 MBC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영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전국 시청자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더 많은 시민에게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바라며, 이번 수상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광주MBC는 최근 유튜브, 네이버TV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전반, 특히 커뮤니티 탭의 활용 방식 역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광주MBC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은 주로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관련 안내에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 프로그램이나 지역 이슈,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는 점이 아쉽다. 커뮤니티 탭은 단순한 공지 게시판이 아니라, 시청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유용한 창구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외 콘텐츠(문화, 다큐멘터리, 라디오 등에 대한 숨은 이야기 공유, 지역 관련 설문조사, 시청자 질문 모집, 퀴즈·댓글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한다면, 커뮤니티 탭은 채널의 소통 허브로 기능하며 자연스럽게 댓글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청자와의 관계 형성은 물론, 채널 충성도 제고와 광주MBC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숙희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는 매주 화·수·목 저녁에 방송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일상, 생활 정보,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다루며, 시청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매거진이다.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광주MBC 보다>는 광주MBC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를 엄선해 지역의 문화, 여행, 음식,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 자원의 발굴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시청자에게 폭넓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관련된 소재, 주제의 폭을 넓혀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구나 싶다. 방송이라는 것이 여러 고충이 따르구나 생각이 들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방송에 관한 고민, 간부의 역할, 관계 속에서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2023년 6월부터 위원 활동을 했는데, 크게 뭘 했다라기 보다 MBC를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 정인영 위원 :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서는 조기 대선, 사법 불신, 지역 갈등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토론했다. 지역 현안의 맥락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시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지만,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단독·심층 보도 가운데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파크골프장 불법 조성, 버스 배차 시간 문제 등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단독 보도로 집중 조명한 점이 인상 깊었다. 지역 현안의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해 후속 취재와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정희 위원 : -영산강 그란폰도를 통해 영산강의 이름에는 산(山)과 강(江)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좋은 날씨에 진행되었고 대회 코스는 영산강을 따라 펼쳐지는 평지와 완만한 언덕이 조화를 이루어 “권있는” 행사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주행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더 프레지던쇼>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AI 산업, 에너지 신산업,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는데, 향후 정부와의 협력,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 등 미래 중점 과제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광주의 미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지역 현안에 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5.18 45주년을 맞아 진행한 <뉴스데스크>에서 헌법 전문 명시와 관련한 논의를 다루었는데, 5.18 정신은 한 지역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용광로>에서는 광주와 K-민주주의를 다루며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계적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조명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현재까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천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안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달 사항이 올라와 있다. 내용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기준,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선거방송의 경우 공정성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방송이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 특히 그렇다. 광주MBC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방송이 이뤄지길 바란다.

-1년을 돌이켜보면 광주비엔날레 대표로 있으면서 한 언론사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제 고향이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기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위원님들 덕분에 저는 시작만 하고 마무리만 하면 되었다.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의견을 주고, 그럼으로써 광주MBC가 좀 더 나은 방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위원회는 원군이 되어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사장과 직원이 힘을 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 1년 동안 위원회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1년 소회는 의미가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모여져 저희에게 큰 힘이 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